

## 캘리포니아주, 밀린 주택 모기지 지원 최대 8만 달러 상환 안해도 돼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주택 융자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한 주택 소유주를 지원하기 위한 '캘리포니아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California MortgageReliefProgram)'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 캘리포니아 주 청사. 사진=shutterstock.com

지난 20일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지사는 캘리포니아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 실시를 발표하고 "밀린 주택 담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노심초사하고 있는 주택 소유자들이 있다"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주택 소유주 누구도 집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떨어서는 안 된다. 세입자와 집주인을 지원했던 것처럼 주택 소유자들을 위한 지원도 최대한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캘리포니아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은 팬데믹 기간 동안 밀린 주택 융자금을 주정부가 대신 갚아주는 것

으로 연방 재무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된다. 이 프로그램의 따라 자격이 되는 주택 소유주는 연체된 모기지 융자금을 최대 8만 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 받은 융자금은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지원금은 주택 소유주에게 지급하지 않고 해당 금융기관에 주정부가 직접 지급한다. 캘리포니아주는 이 프로그램의 예산으로 10억 달러를 배정했다.

수혜 자격은 카운티 중위소득의 100% 미만인 자로 단독주택이나 콘도, 조립식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2020년 1월 21일 이후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타격을 받은 캘리포니아 주민이다.

모기지 구제 신청은 '캘리포니아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 홈페이지(CaMortgageRelief.org)에서 할 수 있다.

## OC한인회, 차세대 미래 비전 대회 및 잡 페어 포럼 마쳐

오렌지카운티(OC)한인회(회장 권석대)는 차세대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미래 비전 대회 및 잡 페어 포럼'을 지난 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OC한인회관(9876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에서 개최했다.

이 행사는 한인 청소년들의 미래에 대한 도전 의식 증진과 정체성 확립을 통한 리더십 배양, 유망 직업에 대한 전망을 소개하기 위해 열렸다.

권석대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청소년들은 앞으로 한인 동포 사회와 미 주류사회를 이끌어갈 주역으로, 오늘 열리는 행사가 청소년들이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정립하고 자신의 진로를 설정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박윤숙 화랑청소년재단 총재가 '정체성 확립과 리더십 배양', 정재훈 테이코 엔지니어링사 대표가 '젊은이여! 우주를 향한 비전을 가져라, 도전하라!', 임의정 아메리츠 파이낸셜 부사장이 '재정 관리와 직업 선택'이란 주제로 강연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인 청소년과 보호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 참석했던 한 보호자는 "이번 행사가 청소년들에게 꿈을 키워주고 진로를 설정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한인 청소년들의 도전 의식을 북돋우고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하면서, 자신의 미래에 대한 원대한 꿈을 키워 나가게 할 이런 행사가 자주 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대통령 자문위원에 한인 임명 배우 대니얼 김 등 3명



▲ 사진은 지난 연말 연설 중인 바이든 대통령. 사진=whitehouse.gov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배우 대니얼 대 김(53), 케빈 김 변호사(51), 인권운동가 세라민 씨 등 한국계 미국인 3명을 아시아인 혐오 범죄 등 인종차별 해소를 위한 대통령 자문위원으로 임명했다.

백악관은 20일 김 씨 등을 포함한 23명의 아시아계 미국인, 하와이 원주민, 태평양 섬 주민(AANHPI) 자문위원으로 발탁하며 미국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인물들이 대거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들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인종 혐오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조언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인기 드라마 '로스트', '하와이 파이브 오' 등에 출연한 김 씨는 그간 인종차별 철폐 등에 활발한 목소리를 내왔다. 그는 미국 내에서 아시아 혐오 범죄가 급증한 올 3월 '여동생이 2015년 인종차별 범죄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후 '아시아계 미국인 재단'의 공동의장으로 활동하는 등 사회 활동도 활발하게 이어오고 있다.

케빈 김 변호사는 한국인 최초로 뉴욕시 의회에 입성한 인물이다. 스탠퍼드대를 졸업한 그는 컬럼비아 로스쿨을 거쳐 변호사와 사업가, 인권단체 '변화의 색(Color of Change)' 등에서 활동해 왔다.

새라민 씨는 미디어 업계 종사자로서, HBO와 펄컨 랜덤하우스 등에 대한 자문 등을 담당해 왔다. 그는 또 유색인종을 위한 비영리 기관을 비롯해 한국계 미국인 공동체 재단 등 풀뿌리 조직에도 깊이 관여했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Implant <del>\$1,700</del> \$1,200	FREE Consultation	Exam X-ray Cleaning \$35
Crown \$500	잇몸치료 <del>\$600</del> \$400	틀니 \$1,500

Dr. Seong Hoon Cho  
DDS

각종 보험  
메디케어(PPO) 환영

### KMC Dental Group 밝은 미소, 건강한 치아

<b>Irvine</b> Tel. (949) 253-8300 2700 Alton Parkway #225 Irvine, CA 92606	<b>L.A.</b> Tel. (323) 660-2005 3755 W. Beverly Blvd. #200 Los Angeles, CA 90004	<b>Hacienda Heights</b> Tel. (626) 333-3000 16388 Colima Rd. #201 Hacienda Heights, CA 91745
---	---	---